역관 변원규(卞元圭)의 생애와 중국사행 시의 교유

김홍매*

Ⅰ. 서론
Ⅱ. 생애와 관력
Ⅲ. 중국사행 시의 교유
Ⅳ. 결론

<국문초록>

변원규(卞元圭, 1837~1896)는 19세기 유명한 역관 문인이다. 그간 변원규의 외교와 무비 강화 등 방면에서의 공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그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고는『밀양변씨효량공파보』와 조선시기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변원규의 생애를 복원하고 중국 사행 시의 일부 교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원규의 6대조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던 왜학 역관 변승업(卞承業, 1623~1709)이다. 변원규는 19세에 역과 식년시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사역원 정, 오위장 등 벼슬을 하였고 정3품 당상역관의 자리에 올랐다. 1880년에 재자관의 신분으로 천진에 가 이홍장(李鴻章)과 회담하고 무기 제조술과 군사 훈련을 배우는 장정(章程)을 상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성 현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가평 군수의 관직을 받았다. 그 이후 또 평산부사(平山府使),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에 임명되었고 외교에서도 계속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기록으로 보아 변원규는 중국에 적어도 10회 이상 갔을 것으로 짐

* 중국 화남사범대학교 외국어언문화학원 강사

www.kci.go.kr

작되는데, 1881년의 사행 중에 영선사(領選史) 김윤식(金允植, 1835~1922)과 깊은 인연을 맺었을 뿐 아니라 종사관 윤태준(尹泰駿, 1839~1884), 백낙륜(白樂倫) 등과도 친분을 맺었다. 또 중국인 유지개(游智開, 1816~1899), 공헌이(孔憲彝, 1808~1863), 동문환(董文渙, 1833~1877) 등과도 교유하였고 유지개의 문집인 『장원시초(藏園詩鈔)』를 조선에 가져와 간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들과의 교유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문화적 교류를 수반하였고 또 이런 문화적 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변원규, 역관, 생애, 사행, 교유, 김윤식, 유지개, 동문환.

Ⅰ. 서론

변원규(卞元圭, 1837~1896)는 조선 후기 외교의 장에서 크게 활약했던 역관 문인이다. 그동안 변원규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세기 조선의 외교와 군비강구, 밀양 변씨 가문의 역관들에 대한 연구, 19세기 한중교류, 역관들의 문집인 『해객시초(海客詩鈔)』에 대한 연구 등에서 이루어졌다.[1] 변원규의 기본 행적 및 19세기 조선의 외교와 한중교류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다. 하지만 역관으로서, 문인으로서의 변원규 개인의 생애와 교유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변원규 및 19세기 역관의 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역관 및 역관문학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남아 있는 역사문헌 자료와 동시대 문인들의 기록 등을 참조하여 변원규의 생애를 복원하고 연행과 관련된 몇

1) 金良洙, 「朝鮮後期 譯官들의 軍備講究」, 『역사와실학』 제19·20집, 역사실학회, 2001; 千金梅,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千金梅, 「壬午軍亂時期 韓中 文士들의 文化交流」, 『한국학논집』 제50집, 2013; 劉婧,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唱和詩集 『秋懷唱和詩』 연구 : 서지 및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劉婧, 「조선 역관 6인의 시선집 『海客詩鈔』에 대한 고찰 : 3종 필사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8집, 우리한문학회, 2013.

몇 중요한 인물들과의 교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변원규는 조선 초기 유명한 문신인 변중량(卞仲良)의 후손으로 밀양 변씨 효량공파(孝亮公派)에 속한다.[2] 본고에서는 우선 『밀양변씨효량공파보(密陽卞氏孝亮公派譜)』의 기록을 참조하여 변원규의 가문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이어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동문휘고』 등 문헌의 기록에 근거하여 변원규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의 관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절차로,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음청사(陰晴史)』, 『운양집(雲養集)』, 만청 관료 유지개(游智開, 1816~1899)의 『장원시초(藏園詩鈔)』, 동문환(董文渙, 1833~1877)의 일기인 『홍동동씨일기6종(洪洞董氏日記六种)』 등 자료의 기록을 토대로 중국 사행 시 변원규와 조선 사대부 김윤식, 만청 관료 유지개, 동문환 등의 교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위의 고찰을 통해 변원규의 행적과 교유 관계를 살핌으로써 19세기 역관의 활동 양상을 규명하고 변원규의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생애와 관력

변원규(卞元圭, 1837~1896)는 역관 명문인 밀양 변씨 효량공파(孝亮公派)로, 전공은 한학(漢學)이다. 자는 대시(大始)이고 호는 길운(吉雲)・주강(蛛舡)이다. 생전에 편찬한 문집으로 『길운선관집(吉雲仙館集)』이 있었고[3] 사후에 또 아들 변종헌(卞鍾獻, 1857~?)이 『길운유고(吉雲遺稿)』라는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찾지 못했다.[4] 현재 볼 수 있는 변원규의 시는 『해객시초』에 수록된 46수가 있는데 그 중 3수가 『대동시선(大東詩選)』

2) 밀양 변씨와 이 가문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홍매, 「소재 변종운 문학의 주제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3~24면 참조.

3) “著有『吉雲仙館集』.”(卞元圭 외, 『海客詩鈔』(淸 董文渙 編, 李豫・崔永禧 輯校, 『韓客詩存』, 書目文獻出版社, 1996) 卷5 ‘朝鮮 卞元圭’, 69면)

4) “甲寅春, 君之胤鍾獻甫持君遺稿而來.”(金允植, <吉雲遺稿序>, 『雲養續集』 卷2) 여기서 말한 갑인년은 1914년이다.

www.kci.go.kr

에도 수록되어 있다.

밀양 변씨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당상역관을 배출한 역관 명문가인데, 변원규의 6대조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였던 왜학 역관 변승업(卞承業, 1623~1709)이다. 이 집안은 많은 역과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나 변원규의 조부인 변중관(卞重觀, 1745~1801)은 의과 출신이었고 증조부와 5대조는 무과 출신인 등 의과와 무과 합격자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변원규의 5대조인 변이흥(卞爾興, 1651~1699)은 무과 출신으로 군기판관을 지냈으며[5], 4대조 변정언(卞廷彦, 1681~1742)은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증조부인 변세혁(卞世赫, 1728~1772)은 공조참판(工曹參判)의 관직을 추증받았다. 변원규의 조부인 변중관은 전의감 정을 지냈고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종이품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을 추증받았다.[6] 변원규의 생부인 변광운(卞光韻, 1798~1816)은 한학 역관으로 행중추부사(行中樞府事), 지추(知樞) 등 관직을 지냈으며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를 받았다.[7]

변원규는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을 지낸 백부 변광원(卞光源, 1781~1816)의 집으로 출계하였다. 그러나 변광원과 부인 백씨는 모두 변원규가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8] 변원규는 백부의 호적에 입적만 하였을 뿐 친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원규는 무과 출신으로 현감을 지낸 방우성(方禹聲)의 딸과 혼인하였다.[9] 본고에서 파악한 변원규의 행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변원규는 철종 6년인 1855년에 19세의 나이로 한학으로 역과 식년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며[10] 1866년 전에 사역원 정(正)이 되었다.[11] 1876년에 40세의 나이로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었으나 윤5월에 몸에 병이 있어

5) 밀양변씨효량공파파보간행회, 『密陽卞氏孝亮公派譜』, 엔코리안, 2011, 88면.
6) 위의 책, 92면.
7) 위의 책, 189면.
8) 변광원의 부인 백씨는 1818년에 사망하였다. 위의 책, 186면.
9) 위의 책, 186면.
10) 『譯科榜目』 철종 6년(1855) 을묘 식년시 기록 참조.
11) "司譯院前正卞元圭, 錢三百兩, 來納臣營, 願助軍需, 故捧上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고종 3년 9월 20일)

www.kci.go.kr

서 오위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체직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12] 그해 헌서재자관(憲書齎咨官)의 신분으로 중국에 사행을 갔다가 12월 25일[13]에 돌아와 문견별단을 바쳤다. 그는 문견별단에서 중국의 상황 외에,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나라의 상황과 동향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14]

1878년 7월 3일에는 사역원 도제조, 제조가 한학 당상역관 이용숙(李容肅), 변원규 등을 포함한 역관들이 오랫동안 가자되지 못했고 공로도 많으므로 한 등급을 올려줄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15] 이 상소문에 변원규를 당상역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변원규는 적어도 1878년, 즉 42세 이전에 이미 정3품 당상역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해 7월 28일에는 또 동지(同知)로 임명되었다.[16]

1879년에는 사은겸동지사(謝恩兼冬至史)의 수역으로 중국에 갔다가 이듬해인 1880년 4월 2일에 돌아와 문견별단을 바쳤고,[17] 5월 25일에는 대호군(大護軍)에 임명되었으며,[18] 7월 6일에는 정헌(正憲)이 되었다.[19] 1880년 9월 16일에는 재자관(齎咨官)의 신분으로 천진에 도착하여 기기국(機器局)·제조국(製造局)·군기소(軍機所) 및 서고(西沽)의 화기와 화약을 쌓아둔 각 창고들을 보고, 22일에는 이홍장(李鴻章)을 회견하여 천진에 가서 무기 제조와 군사 훈련을 배우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 조목과 조선에서 와서 무기 제조술과 군사 훈련을 배우는 장정(章程)을 상의하였다.[20]

---

12) “又啓曰, 訓鍊院都正李奎憲, 五衛將卞元圭·姜世興·韓斗琦, 曹司五衛將李晃九, 文臣兼宣傳官李範祖, 俱以身病, 呈狀乞遞 … 傳曰, 允.”(『승정원일기』, 고종 13년 윤5월 3일)

13) 본고에서 기록한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14) 『同文彙考』 4, 한국사료총서 제24집, 補編續, 「使臣別單 二」, ‘헌서재자관(憲書賫咨官) 변원규(卞元圭)의 문견사건’.

15) “又以司譯院都提調·提調意啓曰, 漢學堂上譯官李容肅·金載禹·李應三·金仁栻·韓應晩·卞元圭·李用俊, 淸學堂上譯官金履周, 倭學堂上驛官玄昔運, 非但久次, 效勞亦多, 特加一資, 漢學堂下譯官金載僖·朴鎭元, 淸學堂下譯官李宜祚·李福基·朴基勉, 履歷俱備, 竝加資施行, 以爲前頭任使之地,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고종 15년 7월 3일)

16) “李源長·卞元奎爲同知.”(『승정원일기』, 고종 15년 7월 28일)

17) 『同文彙考』 四, 한국사료총서 제24집, 補編續, 「使臣別單 二」, ‘사은겸동지사 수역 변원규(卞元圭)의 문견사건’.

18) “大護軍卞元奎.”(『승정원일기』, 고종 17년 5월 25일)

19) “大護軍卞元圭今加正憲.”(『승정원일기』, 고종 17년 7월 6일.)

20) “齎咨官卞元圭以九月十六日抵天津, 見機器局, 製造局, 軍機所及西沽儲備火器, 火藥各庫. 旋於二十二日, 會見李鴻章, 商議來津學習製器練兵分條, 朝鮮來學製造操練章程.”(『고종실록』, 고종 17년 7월 9일)

www.kci.go.kr

이 일로 1880년 12월 5일 조정에서 변원규의 공로가 뛰어나니 원하는 바에 따라 상을 주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임금이 수령에 빈자리가 있으면 내주라고 하여[21] 다음해인 1881년에 적성(積城) 현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가평 군수(加平) 정대조와 서로 관직을 바꾸게 되어 가평 군수가 되었다.[22]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영선사(領選史) 김윤식을 따라 별견당상(別遣堂上)으로 중국에 파견되었으며 가평 군수의 본직에서 개차되었다.[23]

1882년 8월 3일에는 중궁전을 맞이한 경사를 중국에 알릴 사행의 재자관(齎咨官)으로 임명되었고[24] 장단 부사가 되었다가[25] 1883년 1월 17일에는 교섭통상사무 참의(交涉通商事務參議)로 임명되었으며,[26] 10월 23일에는 협의관(協議官)에 차하되어 29일에 중국으로 출발하였다.

이 무렵에 변원규는 또 장단 부사(長湍府使)의 직무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1883년 11월 9일에 이조에서 장단 부사 변원규가 신병이 있어서 관직으로 다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상소를 올려 허락을 받았다.[27] 그해 12월 26일에는 또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임명되었다.[28]

1884년 1월 23일에는 기기국 방판(機器局幇辦)으로 차하되었고[29] 29일에 천진으로 출발하였다.[30] 5월 7일에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단부(單付)되었다.[31]

---

21) “齎咨官卞元圭, 效勞優著, 從願施賞, 何如, 上曰, 守令待窠擬入, 以其子, 令該院拔例調用, 可也.”(『국역 비변사등록』, 고종 17년 12월)

22)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2월 29일, 「적성 현감 변원규와 가평 군수 정대조를 서로 바꾸라는 전교」.

23)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1월 2일, 「영선사로 파견된 가평 군수 변원규의 본직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24) “議政府啓, ‘中宮殿奉迎, 乃國家大慶也. 咨報於中國, 書契於隣邦, 不容少緩. 令文任具由撰出, 而賚咨官, 以譯官卞元圭定送何如?’ 允之.”(『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3일)

25) “傳曰, 長湍府使李寅晩, 竹山府使卞元圭相換.”(『승정원일기』, 고종 19년 12월 29일)

26) “卞元圭爲參議交涉通商事務.”(『고종실록』, 고종 20년 1월 17일)

27) “又啓曰, 長湍府使卞元圭・竹山府使方天鏞俱以呈狀內, 身病猝重, 萬無還官之望云, 竝罷黜,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고종 20년 11월 9일)

28) 『일성록』, 고종 20년 12월 16일.

29) “二十三日. 敎曰: ″參議交涉通商事務卞元圭, 機器局幇辦差下.”(『고종실록』, 고종 21년 1월 23일)

30) “去月二十九日, 中國泰安船、海靖船兩隻, 向西出去, 欽差提督吳長慶一行, 與協議官卞元圭, 按騎離發.”(위의 책, 고종 21년 2월 1일)

1884년 12월 5일에는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 협판의 직임을 맡을 수 없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소에서 변원규는 근래에 국가에 일이 많고 사람을 쓰는 데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처럼 불초한 사람이 한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원래 있던 병이 고질이 되고 한 가지 병이 더 겹쳐서 더 이상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32]

1885년 5월 8일에 조정에서 특별히 변원규(卞元圭)를 제수하여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26일 전 정언 김진우(金鎭祐)가 상소를 올려 변원규를 탄핵하였는데 그 내용은 변원규가 천한 신분으로 지나치게 발탁되어 경의 신분에 올랐으며 총애를 믿고 방자하여 의리를 잊고 사리를 추구하여 뇌물이 문안에 가득하고 위엄과 권세가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니 자급을 삭탈하고 찬배하여 쫓아내라는 것이었다.[33] 하지만 변원규는 쫓겨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해 12월 29일에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임명되었다.[34]

그렇긴 하나 변원규는 김진우의 상소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인 1886년 1월 5일에 변원규는 상소를 올려 자신을 사적(仕籍)에서 깎아내고 시골로 쫓아 보내 달라고 청하였다. 상소문에서는 자신이 자질은 어리석고 신분은 미천한데 세상에 드문 특이한 대우를 지나치게 입고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품계를 무릅쓰고 차지하여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였다.[35]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낱 중인의 신분으로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높은 자리에 올랐음을 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비방과 모함을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종은 변원규의 상소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사직하지 말고 계속 공무를 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김진우의 상소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

31) “同敦寧單, 卞元圭除授事, 承傳.”(『승정원일기』, 고종 21년 5월 7일)

32)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12월 5일, 「자질이 용렬하고 질병이 있으므로 협판의 직임을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협판교섭통상사무 변원규의 상소」.

33) “至若前判尹卞元圭, 卽是賤類中最黠者也. 過蒙拔擢, 濫陞卿秩, 匪分之職, 不稱之服, 莫非天地之洪造也. 渠若有一分彝性, 則尤當恪勤盡忠, 圖報聖恩之萬一. 而乃反怙寵橫恣忘義循利, 賄賂盈於門庭, 威權傾於中外. 情狀莫掩, 物議甚駭, 伏願削奪其資級, 施之以竄逐之典, 以昭法網, 以重名器, 不勝幸甚”(『고종실록』, 고종 22년 10월 26일)

34) “二十九日, 以卞元圭爲協辦交涉通商事務.”(위의 책, 고종 22년 12월 29일)

35)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1월 5일, 「정언 김진우의 탄핵을 입은 일을 인혐하여 사적에서 깎아내어 주기를 청하는 협판교섭통상사무 변원규의 상소」.

변원규가 큰 위기를 맞은 것은 1887년이다. 그는 1886년에 전 부산 첨사 김완수(金完洙)가 일본인에게 돈을 차용할 때 당시 외부독판이었던 김윤식에게 부탁하여 외부직인을 찍어 보증을 해 주게 하였다. 후에 빚이 상환되지 않자 일본인들이 조정에 상소를 하여 1887년에 5월 30일에 김윤식은 면천군(沔川郡)에 정배되었고 변원규는 순천군(順川郡)에 유배되었다.[36]

다음해인 1888년 12월 26일에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37] 그 다음해인 1889년 12월 28일에 다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38] 1890년에는 또 중국에 파견되어 이홍장에게 "조선국사신이 각국에 부임하면 청국사절과 협의하고 駐箚國外部에 보고한다"라는 조항개정을 요구하였다. 1894년 7월 4일에 다시 한성판윤으로 임명되었고 2년 뒤인 1896년에 세상을 떴다.

변원규의 일생을 살펴보면 변원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미천한 신분으로 높은 벼슬에 올라 중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변원규의 스승이었던 이상적(李尙迪) 역시 뛰어난 역관이었고 중국 관리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1864년의 변무사건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논공행상에서는 거의 소외되었고, 공로를 인정받아 하사받은 온양군수도 얼마 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야 했다.[39]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변원규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다. 변원규가 선대나 동시대 역관과는 다르게 이런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뛰어난 중국어 실력과 정치적, 외교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로는 당시 조선의 급박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큰 관련이 있다. 변원규가 중인으로서 파격적인 발탁을 받은 것은 1881년 가평 군수로 임명된 것부터라고 생각되는데, 이 관직

36)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2010, 110면 주156 참조; "協辦通商事務卞元圭, 名在朝籍, 罔念守分自靖, 符同參證挾雜之事, 恣行不法無憚之習, 苟究弊源, 實由於此, 痛惋之極, 寧欲無言, 施以遠惡地定配, 且以督辦通商事務金允植言之, 其在職任之重, 尤當審愼於各國交際, 而私債文字, 遽自蓋印成約, 致有此末由之鬧端, 見笑他邦, 貽辱朝廷, 揆以事體, 極爲駭然, 施以湖沿定配之典."(『국역 비변사등록』, 고종 24년 5월 29일, 「日本人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前 釜山僉使 金完洙를 遠惡島에 己身充軍하라는 등의 傳敎」.)

37) "命順川郡定配罪人卞元圭放."(『고종실록』, 원본 29책 25권 59장 b, 국편 영인본 2책 312면, 국사편찬위원회)

38) "以李命宰爲吏曹參判, 卞元圭爲漢城府判尹."(위의 책, 원본 30책 26권 51장 a, 국편 영인본 2책 338면, 국사편찬위원회)

39) 정후수, 「1863년 辨誣 解決 過程으로 본 李尙迪의 눈물 : 「孔君顧廬(憲庚), 紀余去年奉使進表辨誣事一冊, 王子梅爲之付梓, 見寄數十部, 志謝有作」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52집, 동양고전학회, 2013.

www.kci.go.kr

은 그가 전해에 중국으로 가시 당시 중국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홍장과 4개조로 된 '조선국원변래학제조조련장정(朝鮮國員辨來學製造操練章程)'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것이다. 이번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시작으로 변원규는 대중 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881년에 영선사로 중국에 갔던 김윤식은 변원규에게 준 시에서 "변원규의 능력은 천하무적, 큰일 할 만한 세상에 태어났다"[40]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변원규가 외교의 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III. 중국사행 시의 교유

변원규가 사행에 몇 번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김택영(金澤榮)이 1886년(丙戌)에 쓴 시 「변길운에게 주다[贈卞吉雲]」에 "황금대 아래를 열 번 왕래하니"라는 시구가 있는 것을 보면[41] 이 무렵에 변원규가 이미 중국에 10회 정도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10여차의 사행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880년과 1881년의 사행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변원규는 1880년 9월 16일에 재자관(齎咨官)으로 임명되어 천진에 가서 중국의 무기와 시설들을 보고 22일에는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무기 제조술과 군사 훈련을 배우는 문제들을 상의하였다. 이번 사행에서 이홍장과 깊이 접촉한 것은 물론, 중국의 적지 않은 관료들과도 교유를 맺었다. 이듬해인 1881년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는 사행에 별견당상(別遣堂上)으로 파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변원규와 영선사 일행의 인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김윤식과 변원규의 인연에 대해서는 김윤식이 남긴 기록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윤식의 『음청사(陰晴史)』와 『운양속집(雲養續集)』에는 변원규에 대한 언급과 변원규에게 준 시, 서문 등이 여럿 남아 있다. 김윤식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그들은 전에는 안면이 없었으며 영선사행으로 중국에 갈

40) "卞子才無敵, 生逢有爲世."(金允植, <送卞元圭知事歸國. 季冬>, 『析津于役集』, 『雲養集』, 卷3)
41) "黃金臺下十往來, 一時筆札香牙齒."(金澤榮, <贈卞吉雲>, 『韶濩堂詩集定本』, 卷3)

때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42] 김윤식은 자신이 변원규를 만나게 된 것을 인생의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면서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러웠다고 하였다.[43]

이번 사행에서 변원규는 영선사 김윤식 외에 종사관 윤태준(尹泰駿, 1839~1884), 백낙륜(白樂倫)과도 친분을 맺었다. 김윤식은 변원규에게 준 서문에서 네 사람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였고, 겉치레 따위를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지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겉치레라는 것은 아마도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역관인 변원규는 중인이었으므로 예전의 관행으로 볼 때 영선사나 종사관과 결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용숙과 변원규에 이르러 역관들은 이미 통역과 사행단 인솔이라는 직무를 넘어 외교관에 가까운 직급으로 부상하였고, 이홍장과의 친분 등도 있었으므로 그것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영선사 행이 이루어진 것도 변원규가 전해인 1880년에 별재자관(別賚咨官)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과 '조선국원변래학제조조련장정(朝鮮國員辨來學製造操練章程)'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컸다.

이번 사행에서 김윤식은 변원규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천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관원들이 모두 변원규와의 친분 때문에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또 변원규가 중국의 관원들에 대해 미리 자세히 말해 주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둘 수 있었다.[44] 김윤식은 1881년 12월에 변원규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지어 준 시에서 "변원규의 능력은 천하무적, 큰일 할 만한 세상에 태어났다"[45]라고 하였고, 자신이 변원규와 더불어 "때로 여관의 등불 아래서, 손뼉 치며 대세를 논했다", "시사에 어려움 많으니, 노력하여 힘써 함께 구제하세나."라고 하였다.[46] 변원규가 큰일을 할 만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

42) "余與吉雲, 生並一世, 居同一國, 宜其托契之早, 而顧未能源源也. 槩知其爲博學多才, 敏而好禮人也. 辛巳秋, 余奉使赴天津, 吉雲以別价偕行."(金允植, <送卞吉雲元圭序. 辛巳季冬>, 『雲養續集』, 卷9)

43) "余與君素不相識, 乃垂老傾盖于遼薊燕趙之野. 自以爲平生奇遇, 恨相知之晚."(金允植, <吉雲遺稿序>, 『雲養續集』, 卷2)

44) "交津局諸大夫, 吉雲皆爲之先容, 彌縫闕失, 幸不辱命. 如瞽者之有相焉."(金允植, <送卞吉雲元圭序. 辛巳季冬>, 『雲養續集』, 卷9)

45) "卞子才無敵, 生逢有爲世."(金允植, <送卞元圭知事歸國. 季冬>, 『析津于役集』, 『雲養集』, 卷3.)

46) "時於旅燈下, 抵掌論大勢.""時事多艱虞, 努力勉共濟."(金允植, <送卞元圭知事歸國. 季冬>, 『析津于役集』, 『雲養集』, 卷3)

www.kci.go.kr

속에서 외교 문제가 특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번 사행의 임무는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유학생을 천진에 파견하여 중국의 군사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47] 조선 측을 대리하여 미국과 통상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이홍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홍장과 미리 교섭을 한 바 있는 변원규가 각별한 중시를 받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변원규와 더불어 당시의 대세를 논하고 시사에 어려움이 많으니 노력하여 함께 구제하자고 한 것 등도 이번 일에서 변원규가 맡은 중요한 역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도 이번 사행에서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886년 두 사람이 함께 견책을 받은 일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886년 10월, 김윤식은 외부독판으로 있었는데, 휘하에서 협판으로 있던 변원규의 부탁으로 전 부산 첨사 김완수(金完洙)가 일본인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외부직인을 찍어 보증을 해 주었다. 후에 빚이 상환되지 않자 일본인들이 조정에 상소를 하여 김윤식은 면천에 정배되었고 변원규와 김완수도 함께 유배되었다.[48] 김윤식이 변원규의 부탁으로 사사로이 외부직인까지 찍으면서 차용보증을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매우 특기할만한 점은 김윤식이 1884년에 변원규를 대신하여 중국인 유지개(游智開, 1816~1899)의 문집에 서문을 쓴 것이다. 유지개는 자가 자대(子代)이고 호남성(湖南省) 신화(新化) 사람이다. 함풍(咸豐) 원년인 1851년 거인(擧人)으로, 1872년에 영평지부(永平知府)가 되었다. 1880년에는 이홍장의 추천으로 영정하도(永定河道)의 직에 부임되었고 1885년에는 사천관찰사(四川按察使)로 부임하였다.[49] 1879년 7월에 헌서재자관(憲書賫咨官)으로 파견된 이용숙(李容肅)이 가져간 이유원(李裕元)의 밀서를 이홍장에게 전달하였다.

변원규는 광서 5년인 1879년 12월 27일에 유지개를 처음 만났다. 유지개

47) 安炳基, 「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下): 朝美條約 締結(1882)을 위한 朝淸交涉」, 『東方學志』 제4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203~249면.
48)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2010, 110면 주156 참조.
49) 유지개의 생애는 王英春, 「一代廉吏 : 游智開」, 秦皇島廉政網, 2017년 4월 24일을 참조하였다.

는 자신이 도성 문[都門]을 지나다가 여관에 묵었는데 새벽 오경 무렵에 변원규가 찾아왔고 날이 밝아서야 떠났다고 하였다.[50] 유지개의 기록에 따르면 변원규는 그때 부사직(副司直)의 직함이었다. 다음해인 1880년 봄, 변원규는 조선으로 돌아갈 때 다시 영평부로 유지개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해 8월 11일에 별재자관(別賚咨官)의 신분으로 다시 중국으로 가 유지개를 방문하였다.[51] 이때 변원규는 고종의 서찰과 선물을 유지개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조선에서 유학생을 파견하여 무기제조 등 기술을 배우도록 해 달라고 청한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데 따른 답례를 위해서였다.[52] 이번 사행에서 이홍장은 변원규에게 천진에게 회담을 할 것을 명하였는데, 회담이 끝난 뒤 열린 연회에서 유지개와 변원규는 상대방의 초상화를 그려 가졌고, 유지개는 후에 변원규가 그리울 때마다 초상화를 꺼내 보았다.[53]

귀국할 무렵에 변원규는 다시 유지개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유지개는 고종에게 보검 한 자루와 시 한 수를 보냈다.[54] 유지개는 시에서 고종이 조정의 어지러운 의견을 빨리 정리하고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보검을 보낸 것은 고종에게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원규는 1881년 11월 28일에 보정부(保定府, 直隸總督署)에서 이루어진 김윤식과 이홍장의 제1차회담에 배석하였는데, 이 회담은 유지개가 주선한 것이었다.[55] 그러나 중국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에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선의 방침과, 자신이 중재하는 가운데 천진에서 중국 관원의 배

50) “光緒五年十二月二十七日, 道過都門, 宿旅舍中. 五更起將登程, 朝鮮使臣卞元圭候門見訪, 天明乃別. 因作詩贈之. 元圭號吉雲, 官副司直.”(游智開, <贈朝鮮卞吉雲>, 앞의 책, 82면); “某年元圭謁先生於永平府署.”(金允植, 「遊藏園詩集跋. 甲申. 代卞元圭作」, 『雲養集』, 卷11) 김윤식은 『장원시초』의 발문에서 변원규가 영평부의 관서로 찾아가 유지개를 만났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오류로 보인다.

51) “光緒六年春, 吉雲自京歸朝鮮, 過永平作別. 八月一十一日, 余解郡符, 將行矣. 而吉雲適複來云. 將請於朝率兵, 往天津習武備, 因再贈之.”(游智開, <再贈卞吉雲>, 앞의 책, 84~85면)

52) 『국역 비변사등록』, 고종 17년 10월 29일 참조.

53) “光緒六年秋, 李太傅命與吉雲會議於天津. 事畢置酒時, 黃花盛開, 羅列屛障, 因用西法寫照各摹一紙. 每遇相思, 展圖晤對.”(游智開, <寄懷卞吉雲>, 위의 책, 121면)

54) “朝鮮雅尙文學, 强鄰逼處, 智開屢遣書其國, 相言宜大修政敎, 謀所以自强. 而合肥李太傅複勸其與泰西各國通商. 朝鮮廷議未決. 光緒六年冬,國王命其臣卞元圭寄書智開, 並惠經籍藥物. 因鑄劍報之, 兼綴以詩一.”(游智開, <雙劍奉答朝鮮國王>, 위의 책, 87~88면)

55) 安炳基, 앞의 논문, 203~249면.

www.kci.go.kr

석 하에 한미조약을 체결한다는 이홍장의 방침이 서로 어긋나게 되자 김윤식은 11월 30일에 열린 제2차 회담 이후 귀국하는 변원규에게 이를 조선의 임금에게 품의하게 되었다.[56] 변원규는 보정(保定)의 여관에서 유지개와 이별하였고[57] 12월 11일 천진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58]

이번 사행 중이었던 11월 24일에 유지개는 변원규와 김윤식 등을 초대하여 차를 마셨는데, 모임에서 자신의 문집인 『장원시초(藏園詩鈔)』를 꺼내 보여 주었다. 그 속에는 변원규에게 주는 시 다섯 수와 전해인 1880년에 고종에게 보낸 「보검편(寶劍篇)」이라는 시가 들어 있었다. 변원규는 그 자리에서 5언시를 지어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김윤식과 종사(從事)들도 모두 차운시를 지었다.[59] 변원규가 조선에서 간행한 『장원시초』는 아마 이때 유지개에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원규는 『장원시초』를 간행한 뒤에 유지개에게 100부를 보내 주었고[60] 이 문집은 후에 편집을 거쳐 중국에서 다시 간행되었는데,[61] 이는 19세기 한중 교류의 다양한 면모를 반영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변원규가 친분을 맺었던 중국인들 중에는 조선인들과 많은 교유를 하였던 공헌이(孔憲彝, 1808~1863)도 있다. 공헌이는 자가 서중(敘仲)이고 호가 수산(繡山) 혹은 한재(韓齋)이며 서실의 이름은 대악루(對嶽樓)이다. 산동(山東) 곡부(曲阜) 사람으로, 도광 17년 거인이며 내각중수(內閣中書)의 벼슬을 지냈다.

변원규와 공헌이의 친분에 대해서는 '한재아집도(韓齋雅集圖)'에 남아 있는 변원규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원규는 1881년에 영선사 일행

56) 安炳基, 앞의 논문, 203~249면.

57) "辛巳冬, 自保定東歸. 拜別先生於逆旅."(金允植, <遊藏園詩集跋. 甲申. 代卞元圭作>, 『雲養集』, 卷11)

58) 安炳基, 앞의 논문, 203~249면.

59) "二十四日, 晴, 朝飯時, 藏園見請, 與石汀(尹泰駿)·兼山(白樂倫) ·吉雲, 具黑團領, 入見永定南岸同知桂本誠, 號禮堂居, 北岸同知豫復, 號崑山居, 亦在座, 寒暄進茶畢, 以筆代舌, 藏園年過六旬, 樂易明快, 不事邊幅, 談次出示其詩集, 有贈卞吉雲詩五六首, 內有「寶劍篇」, 藏園嘗送寶劍于吉雲, 囑今(令)轉達于大內, 伴以詩函, 蓋言克斷之事也, 吉雲卽席, 次五言以謝之, 余與從事皆和之."(金允植, 『陰晴史』 上, 高宗 18年 11月)

60) "吉雲攜余詩稿歸朝鮮, 來書謂索觀者衆. 因卽付梓並印百本寄還."(游智開, <寄懷卞吉雲>, 앞의 책, 121면)

61) 『장원시초』의 간행 양상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조 문집 간행의 제양상」,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67~68면 참조.

www.kci.go.kr

으로 갔을 때 중국의 문인들과 가진 모임에서 공헌이의 글씨를 보게 된다. 변원규가 본 것은 함풍 원년(1850)에 공헌이의 집에서 대희(戴熙, 1801~1860)를 비롯한 몇 명의 문인들이 모임을 가진 일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한 것이었다. 화폭의 가운데는 대희가 그린 '밀림두장도(密林陡嶂圖)'가 있고 오른쪽에는 공헌이가 쓴 '한재청우도(韓齋聽雨圖)'라는 글씨가 있다. 그림의 왼쪽과 아래쪽에는 중국과 조선의 문사들이 쓴 글이 있는데 변원규가 쓴 발문은 두 번째 순서에, 김윤식이 쓴 발문은 네 번째 순서에 위치해 있다. 변원규가 쓴 글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동치(同治) 계해(癸亥)년에 나는 우선(藕船) 이상적(李商迪) 선생을 따라 북경에 가서 수산(繡山) 시독(侍讀)선생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선생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고 또 졸고에 서문을 써 주시면서 큰 기대를 드러내셨다. 그러나 나는 학문이 거칠어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곧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재주도 없이 외람되게 사명을 받들고 보성(保省)에 왔다가 소산(筱山), 후보(厚甫) 등과 함께 '한재아집도(韓齋雅集圖)'를 펼쳐보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뜻밖에 마고선녀가 상전벽해를 세 번 본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붓을 내려놓고 마음이 복잡하여 오래도록 망연히 서글퍼 하였다. 광서 7년(1881년-역자) 섣달, 조선 변원규 길운이 삼가 쓰다.62)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변원규는 동치 계해년인 1863년에 이상적과 함께 북경에 가서 공헌이를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공헌이는 당시 27세밖에 안 되었던 변원규의 글을 읽고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서문을 써주기까지 하였다. 공헌이는 그해 12월에 세상을 떴으므로 이때는 공헌이가 사망한지 이미 18년이 흐른 뒤였으니 변원규가 느꼈을 격세지감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모임은 중국과 조선 양국의 문인들이 함께 모여 그림을 감상하고 전날의 묵연(墨緣)을 잇는 아집(雅集)의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원규와 김윤식의 글이 1881년에 쓴 것인 외에 다른 글들은 함풍(咸豊) 원년인

62) "憶在同治癸亥, 偕李藕翁入都, 獲謁繡山侍讀先生. 先生牖約, 又爲題拙稿, 期勗過深. 元圭荒嬉無成, 老將至矣, 承乏使命. 來到保省, 得與筱山, 厚甫兩世兄展閱韓齋雅集圖卷, 日月幾何, 居然若麻姑坐閱海桑, 投筆徊徨, 惘然不怡者久之. 光緒七年塗月, 朝鮮卞元圭吉雲甫謹題."

1850년, 함풍 갑인(甲寅)년인 1854년, 함풍 7년인 1857년에 쓴 등 날짜가 서로 다르며,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 씌어진 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시간에 여백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외『해객시초(海客詩鈔)』에 실린 변원규의 시「오군영(五君詠)」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는 다섯 명의 청나라 사람들에 대해 읊은 것인데 이 다섯 명은 각각 용주(蓉洲) 왕헌성(王憲成), 상운(緗雲) 황운곡(黃雲鵠, 1819~1898), 중복(仲復) 심병성(沈秉成), 연초(硏樵) 동문환(董文渙), 숙평(叔平) 장세준(張世準)이다. 이들 중 본고에서는 당시 조선인들의 문집인『한객시록(韓客詩錄)』을 편찬하고 있었던 동문환(董文渙)과의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동문환은 중국과 한국에서「추회창화시(秋懷唱和詩)」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며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과 교유하고 그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편찬하여 19세기 한중교류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63]

동문환과의 교유는 앞의 사람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동문환의 일기를 보면 1864년 12월 29일의 기록에 변원규가 처음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변원규는 동치(同治) 3년인 1864년 12월 29일에 동문환에게 서찰을 보냈고[64] 다음해 1월 8일에 유리창의 서책 가게[書肆]에서 이용숙과 함께 동문환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65] 이예(李豫) 교수에 따르면 변원규는 그때 이미 사행에 와서 동문환에게 서찰을 보낸 것이었다. 변원규와 동문환의 교유는 이때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월 11일 오후에는 이용숙과 함께 동문환의 집을 방문해 함께 함께 술을 마셨다. 14일에는 이용숙 등과 함께 황운곡, 심병성 등과 함께 저녁때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26일에는 왕헌성, 황운곡, 장세준 등을 초대하여 송균암(松筠庵)에서 술

63) 동문환과 조선인들의 교유, 및「추회창화시」에 대해서는 김명호,「동문환의『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유」,『韓國漢文學硏究』제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김려화,「동문환(董文渙)과 조선 문인의 추회창화시(秋懷唱和詩) 연구」,『국문학연구』제34집, 국문학회, 2016; 劉婧,「19세기 朝·淸 문인들의 唱和詩集『秋懷唱和詩』연구 : 서지 및 편찬배경을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4) 董壽平·李豫 主編,「董硯樵先生年譜長編」,『洪洞董氏日記六种』제6권, 北京圖書出版社, 1997, 88면.

65) 위의 책, 89면.

www.kci.go.kr

을 마셨다.[66] 2월 9일에는 벗이 그림을 그린 부채를 동문환에게 선물하고 다음날 북경을 떠난다고 이야기하였다.[67]

변원규가 쓴 「오군영」은 이 무렵에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문환의 일기에 따르면 1월 14일에는 심병성, 황운곡과 자리를 함께 하였고 26일에는 왕헌성, 황운곡, 장세준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들 중 황운곡은 변원규가 북경에 있을 때 척독을 두 편 보냈으며 변원규가 귀국한 이후에도 척독을 세 편 보냈다.[68] 이로부터 이들과의 교유가 일차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치 5년(1866) 1월 14일에 동문환은 변원규가 보낸 서찰을 받았다. 변원규는 자신이 쓴 「기회시(寄懷詩)」와 「화연추추회시(和硏秋秋懷詩)」 8수 그리고 진철대사비탁본(眞澈大師碑拓本)과 홍선대원군이 그린 묵란(墨蘭) 두 폭 등을 편지와 함께 보냈다.[69] 동치 6년(1867) 1월 3일에도 동문환은 변원규가 보낸 서찰과 그가 보낸 선물(조선의 물품)을 받았다. 변원규는 또 동문환이 쓴 『성조도설(聲調圖說)』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70] 동치 7년(1868) 1월 4일에 동문환은 김석준과 변원규 두 사람의 서찰을 받았는데 김석준한테서 김석준, 변원규, 강해수, 김병선의 시를 묶은 선집 두 책을 받았고 변원규한테서는 또 변원규와 최성학의 시고 1책을 받았다고 하였다.[71] 22일에도 변원규의 서신을 받고 선물을 보내 주었다.[72] 동치 10년(1871) 8월 2일에는 박규수와 변원규의 서찰을 받고 4일에 그들에게 보내는 답장을 써서 9일에 보냈다고 하였다.[73] 동치 11년(1872) 2월 2일에 변원규에게 답신을 보내고 새로 판각한 시집 한 부를 보내주었다.[74]

다른 역관들과 마찬가지로 변원규와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와의 교유는 사행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살

66) 위의 책, 89면.
67) 위의 책, 90면.
68) 千金梅,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년, 82면 참조.
69)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02면.
70)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03면.
71)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24면.
72)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26면.
73)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51면.
74)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158면.

www.kci.go.kr

펴본 영선사 김윤식, 그리고 중국인 유지개와의 교유는 주로 1880년과 188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무비강화에 관한 교류 및 조미통상조약의 체결 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외교 업무의 장에서 서로 만났고 함께 국가대사를 논의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우정을 발전시켰다. 변원규를 비롯한 조선인들과 동문환의 교유는 개인적인 문학적 교류의 성격이 강한데, 교유를 통해 문학 작품과 서화, 금석문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했을 뿐 아니라 문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변원규는 유지개의 『장원시초』를 중국에서 간행하였고 동문환은 비록 간행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인들의 작품을 힘써 수집하여 후세에 소중한 문헌자료를 남겨 주었다. 비록 본고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문화적 교류는 분명 두 나라의 문화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Ⅳ. 결론

변원규는 19세의 나이로 역과에 장원급제한 뒤 비교적 순탄하게 역관의 길을 걸었고, 역관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하였다. 1880년에 별재자관(別賚咨官)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어 이홍장(李鴻章)과 '조선국원변래학제조조련장정(朝鮮國員辦來學製造操練章程)'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조정에서 크게 중시를 받게 되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 수령의 자리에 임명되었고 최종에는 한성 판윤에 임명되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한성 판윤 모두 여러 번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던 점, 재임 중에도 외교 사무를 위해 빈번히 중국으로 갔던 점 등으로 보아 그의 주된 신분은 여전히 역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 역관의 일을 하다가 현달한 사람은 있었지만 중기 이후에 역관의 신분이 기술직 중인으로 고착되면서 청요직으로의 상승이 불가능해졌던 점으로 비추어 보아 변원규의 경우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높이 발탁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는 역관을 비롯한 기술직 중인들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국가 대사에서 중

www.kci.go.kr

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분의 상승 또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원규는 사행에서 조선의 사대부들 및 중국의 중요한 관료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본고에서는 1880년과 1881년 사행과 관련이 있는 영선사 김윤식, 중국 관료 유지개와 교유 및 동문환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김윤식과 유지개, 동문환의 기록들을 검토하였다. 김윤식, 유지개와의 교유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인 성격의 것이 크지만 동시에 문학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동문환과의 교유는 주로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며 문학의 전파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교류가 후세의 연구를 위해 중요한 문헌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편폭과 자료의 제한으로 1880년 무렵의 사행과 관련된 조선 영선사 김윤식, 청조 관료 유지개와의 교유 및 청조 문인 동문환과의 교유에 대해서만 살폈고 기타 조선인, 혹은 중국인들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金允植 저, 김익수 역,『續陰晴史』, 제주문화원, 2010.

金允植,『續陰晴史』(한국사료총서 11, 국사편찬위원회, 1971)

金允植,『雲養續集』(한국문집총간 328, 한국고전번역원, 2004)

金允植,『雲養集』(한국문집총간 328, 한국고전번역원, 2004)

金允植,『陰晴史』(한국사료총서 6, 국사편찬위원회, 1958)

金澤榮,『韶濩堂詩集定本』(한국문집총간 347)

卞元圭 외,『海客詩鈔』(淸 董文渙 編, 李豫・崔永禧 輯校,『韓客詩存』, 書目文獻出版社, 1996)

卞元圭 외,『海客詩鈔』,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필사본.

董壽平・李豫 主編,「董硯樵先生年譜長編」,『洪洞董氏日記六种』 제6권, 北京圖書出版社, 1997.

游智開,『藏園詩鈔』,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본.

『국역승정원일기』(한국고전번역원, 1998).

『동문휘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변상철・변복연 편,『密陽卞氏孝亮公派譜』, 밀양변씨효량공파파보간행회, 엔코리안, 2011.

2. 논문

金良洙,「朝鮮後期 譯官들의 軍備講究」,『역사와실학』 제19・20집, 역사실학회, 2001, 343~380면.

김려화,「동문환(董文渙)과 조선 문인의 추회창화시(秋懷唱和詩) 연구」,『국문학연구』 제34집, 국문학회, 2016, 269~295면.

김명호,「동문환의『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유」,『韓國漢文學硏究』 제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391~418면.

김영진,「조선조 문집 간행의 제양상」,『민족문화』 제4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5~

www.kci.go.kr

75면.
김홍매, 「소재 변종운 문학의 주제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安炳基, 「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下): 朝美條約 締結(1882)을 위한 朝淸交涉」, 『東方學志』 제4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203~249면.
王英春, 「一代廉吏 : 游智開」, 秦皇島廉政網, 2017년 4월 24일.
劉婧,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唱和詩集 『秋懷唱和詩』 연구 : 서지 및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6집, 한중인문학회, 2012, 229~270면.
劉婧, 「조선 역관 6인의 시선집 『海客詩鈔』에 대한 고찰 : 3종 필사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8집, 우리한문학회, 2013, 229~270면.
장경호, 「고종대 한성판윤의 특징과 변화(1863~1907)」, 『서울학연구』 제65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6, 171~224면.
정후수, 「1863년 辨誣 解決 過程으로 본 李尙迪의 눈물 : 「孔君顧廬(憲庚), 紀余去年奉使進表辨誣事一冊, 王子梅爲之付梓, 見寄數十部, 志謝有作」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제52집, 동양고전학회, 2013, 199~228면.
千金梅,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千金梅, 「대원군 이하응(李昰應)과 청조 문사들의 교류 : ≪천안척방(天鴈尺芳)≫을 중심으로」, 『東亞人文學』 제37집, 동아인문학회, 2016, 181~206면.
千金梅, 「壬午軍亂時期 韓中 文士들의 文化交流」, 『한국학논집』 제5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37~68면.

www.kci.go.kr

The Translator Byeon WonGyu's Career and Intercourse in Peking

Jin, Hong-Mei

Byeon WonGyu(卞元圭, 1837-1896) was a famous translator and literati in late Joseon. There are many research for his diplomatic and enhance military contribution in the academic circles now. But the research about his descent and the life is seldom. Based on this point, I will do some research for his career and some relative communic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his genealogy and historical documents of late Joseon on this paper.

Byeon WonGyu's six generation was Byeon SeungEop(卞承業, 1623-1709) who was a translato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His family began to developed after Byeon SeungEop. When Byeon WonGyu was 19 years old, he got the first in the imperial examination by the department of translation. After then,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Translation Bureau, OhWijang(五衛將) and other positions. And later he was promoted to a third grade civil servant as a interpreter.

In 1880, Byeon WonGyu went to Tian Jin to meet Li HongZhang(李鴻章) in the identity as a special officer was in charge of report and advisory. In this meeting they talked about the constitution of senting the students from Joseon to Qing to study weapon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military training knowledge. For he got a great achievement in this meeting, he was appointed county magistrate of JeokSeong(積城縣監) and magistrate of GaPyeong(加平郡守). Thereafter he occupied municipal official of PyeongSan(平山府使) and the chief local official of HanSeong(漢城府判尹). And also he continu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iplomacy.

From the existing historical document, Byeon WonGyu went to Qing for 10 times at least. In the process of the visit in 1880, he made a deep friendship with Kim YunSik(金允植, 1835-1922) who was the leader of the Joseon envoys. When he made a friendship with the officers as Yun TaeJun(尹泰駿, 1839-1884), Baek NakYun(白樂倫) and so on, he also communicated with literati of Qing Dynasty,

www.kci.go.kr

just like You ZhiKai(游智開, 1816-1899), Kong XianYi(孔憲彝), Dong WenHuan(董文渙). Then Byeon WonGyu brought the poetry anthology “CangYuan ShiChao”(藏園詩鈔) to Joseon which was written by You ZhiKai and print it for publication. Although the communication was the regular course of official duties, but they indeed carried out a cultural exchanges. For there was a two way communication between them, so the significance is undeniable.

keywords: Byeon WonGyu(卞元圭), translator, life, an envoy to Qing, communication, Kim YunSik(金允植), You ZhiKai(游智開), Dong WenHuan(董文渙).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www.kci.go.kr